

돈 애착 불안한 심리 파고들기 아차! 하다 나도 모르게 당한다

지난달 30일 오전 불안한 표정의 20대 여성 A(22)씨가 광주시 동구의 한 은행을 방문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계좌를 해킹하고 계좌에 들어있던 전액 3600만원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 했다. 은행 직원은 직감적으로 A씨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걸렸다고 의심했고 동부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A씨는 경찰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통장이 대표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들어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빨리 이체해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진짜로 믿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 사망과 관련한 보상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노려 ‘예금이 사라질 수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한 뒤 돈을 옮길 계좌를 불러냈다. 은행에서 A씨에게 은행 직원의 질문을 예상해 답변까지 일러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인 A씨는 검찰이나 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지 알지 못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압적인 목소리로 A씨를 불안하게 만들어 A씨는 주변에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5일 광주지역 수사기관, 심리학, 범죄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이른바 ‘피압시성’(被暗示性)이 작용하고 있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최면술사(지도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실제 보이스피싱조직은 강압적인 목소리, 용어로 피해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은경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장은 “범죄자들이 피압시성이라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다”며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와도 다시 되묻는 등 상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지만 불안감이

보이스피싱 기승 왜



**검찰·경찰 사칭 권위 내세워
상당수가 노년층 노린 범죄
취업사이트 가짜 구직 공고
수사기관 자금 추적 피해
대출기관 빚자 범죄도 찾아
돈 관련 전화 반드시 의심**

앞서다보면 자율적인 결정체계, 인지 기능의 저하를 불러와 쉽게 타인의 말을 믿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이다. 이들은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지 등을 말하며 신뢰성을 높인다. 피해자와 대화과정에서 ‘수사번호’, ‘피의자 신분’, ‘검찰 출두’ 같은 용어를 사용해 권위를 포장한다. 심리학에 등장하는 ‘권위에 대한 복종’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특정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부당한 명령에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따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6일 동구에서 발생한 70대 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사건도 수사기관의 권위를 내세워 불안감을 조성했다. 당

시 피해자 B(여·76)씨는 “경찰관인데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에 있는 세탁기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 3000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랐다. B씨는 또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집 현관문을 잠그지 말고 나가라”는 지시에, 현관을 열어놓고 동사무소로 갔다. 이 틈을 이용해 피싱 조직은 B씨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갈명진(범주심리 전공)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심은 심리가 있다”며 “이 심리가 강할수록 반대로 재산을 지키고 싶은 심리도 강해지기 때문에 사기 전화를 받았을 때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취업사이트에 구직 공고를 띄워 구직자들에게 급여계좌 등록에 필요하며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 피해금을 입금 받는 수단으로 구직자들의 계좌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수법으로는 대출기관을 빚자해 대출 희망자를 상대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 갚기를 반복해야 한다”며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범죄예방론)는 “젊은 층들은 IT기기 활용빈도가 높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쉽게 찾는 구석이 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사드 문제로 한·중 외교관계가 악화된 틈을 이용해 한국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규 광주동부경찰 형사과장은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계좌를 물어보거나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당하면 대부분 중국으로 송금된 뒤 때문에 피해금 회수도 어렵다. 결국 한번 더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낚시하고 싶어서” 고가 자전거·낚시대 훔쳐

나주경찰, 30대 구속영장 신청

나주경찰은 5일 고가의 외제 자전거와 낚시대 등을 훔친 나모(37)씨에 대해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달 12일 나주시 성북동 한 주택의 뒷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460만원 상당의 독

일제 큐브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월 6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나주에서 같은 수법으로 자전거 5대와 낚시대 1대 등 10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장이 140cm로 왜소한 체구였던 나씨는 담을 넘지 못해 주로 뒷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

친 자전거들은 자신이 직접 타다 고장 났을 경우 지인의 집에 맡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키가 작고 동종전과가 있는 나씨를 검거했다. 나씨가 훔친 자전거는 경찰에 의해 전량 회수됐다.

나씨는 경찰에서 “나주시 노안면 인근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싶어서 낚시대와 자전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연기 가득한 사무실 화재 진화 소방관들이 5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아이플렉스(I-PLEX·청년창업지원센터) 6층 입주업체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커피 로스팅 기계에서 불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원을 조사중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

환자 유치에 포상금 지급도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경찰이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됐다고 결론내렸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구수기 소)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

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손씨와 전 이사장이 형식적 이사회를 두고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 팔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이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도 봤다.

또 손씨가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무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방법으로 차액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7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했다는 직원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 3명에는 손씨와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53·여)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어깨치료 주사 맞은 50대 여성, 일주일만에 숨져

어깨치료 주사를 맞은 50대 여성이 갑작스러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1주일 만에 숨졌다.

5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2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A(여·59)씨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시 동구 한 병원에서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소생불가 판정을 받고 지난 4일 오전 해당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혈압 외에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희기자 kimyh@

역주행 교통사고 2명 부상

5일 새벽 0시5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편도 5차로에서 나모(59)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김모(33)씨의 승합차와 정면 충돌했다.

택시 운전자 나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 A씨 등이 다쳤으며, 승합차

운전자 김씨는 다리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나씨가 사고 당시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나씨 등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제버터 못준 전과 52범 또 절도

○...상습절도 전력 있는 30대가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 자신을 한 눈에 알아본 경찰관의 눈빛이 때문에 털리다.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고모(36)씨는 지난 2월19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조모(23)씨의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30만원 등 금품을 훔치고 지난 3월에는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6만 8000원 어치의 삼겹살과 소주, 맥주 등을 꺼내 먹었다는 것.

○...절도 등으로 52차례 처벌받은 고씨는 무전취식(사기)혐의로 수감된 후 지난해 7월 출소했는데 경찰은 “CC-TV 속 용의자 얼굴을 보는 순간 고씨인지 한 번에 알았다”고 설명.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증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등)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호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육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